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양 계 민[†]

정 진 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태도,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39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무경험자 22명과 접촉경험자 170명이었다. 무경험자 집단에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포함되었고, 경험자 집단에는 노동상담원, 대안학교 교사, 대학 튜터, 북한이탈주민후원기관의 직원, 대학급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었다.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태도를 비교해본 결과, 무경험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고 신뢰와 수용은 중간정도에 위치하였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는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집단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보호담당 형사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가장 낮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긍정적인 점도 있는 한편 거칠고 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었다. 이는 접촉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함을 보여주었다.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두 집단 간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접촉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성격이나 불확실성 회피경향 등의 개인적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결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선발과 훈련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과 평화교육에 대하여 갖는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태도, 신뢰, 수용, 권위주의 성격, 불확실성 회피경향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3-BM2004)

† 교신저자 : 양계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yangkm68@hanmail.net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9월 말까지 5,92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그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이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면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인 동시에 남한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집단은 정부기관과 약간의 시민단체 및 교회 등이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이 적응을 해야 하는 대상은 남한 사회이며 남한주민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남한사회 전체의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윤여상, 2003).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별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윤인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소외와 주변화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남한정부나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홀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이것은 정착시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판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는 '얼마나 모질면 북에 처자

식, 부모형제를 두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오겠나?', '한번 배반한 사람은 자꾸 배반하므로 믿지 마라', '노력은 안하고 요구만 한다'는 등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갖게 되고 남한사회의 일원이라는 귀속감을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수용정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북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부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이 형성한 태도는 결국 북한 사람 전체에 대한 태도로 일반화될 것이고, 북한 사람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결국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통일을 원하는 열망이 높다는 연구결과(정기선, 1998)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심리학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북한 또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편견을 조사하였다. 김혜숙(2000, 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북한 사람들이 협동단결력이 강하고, 순박하고 정이 많으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는 감정에 의해서 더 잘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영(1998)의 연구에서는 남한의 대학생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북한 동포라고 하는 두 대상에 대해 크게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집단으로 지각을 하고, 북한 동포나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내집단으로 지각을 하고 있었다. 전우영과 조은경(2000)의 연구에서는 북한과 북한 내 하위집단에 대한 감정입의 정도가 크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고 통일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북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거리감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 연구로, 인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태도의 더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층이 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생활수준별로는 중상층 이상이 더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민현선, 박미영, 2000).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을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대학생 또는 성인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정관념의 조사일 뿐이고 남북한의 사람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로는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경찰청 형사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배치될 때부터 주택확보, 취업연결, 민

간단체와의 연결 등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우택, 윤덕룡과 민성길(2000)의 연구는 신변보호 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조사하였는데, 초기 3개월 이내에는 불안과 불신,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였고, 3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불만,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등의 자립의지의 부족, 경제생활 미숙 등을 많이 지적하였다.

홍순혜, 박윤숙과 원미순(2003)은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장애요인과 담당관의 업무부담을 보았는데,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능력이상의 대우를 요구하고 문제를 남이 해결해줄기를 바라는 등 자립능력의 부족이 담당관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하지 못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등 생활태도의 문제가 담당관의 업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실제로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는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이라는 남한사회의 특수한 집단만을 연구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다른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까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와 급우, 직장동료 등은 신변보호담당관과는 다른 경험을 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은 또한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들을 접촉한 결과 남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본 연구는 접촉이 남한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떤 대상 집단에 대한 태도, 신뢰와 수용은 접촉을 해보았는지의 여부, 접촉의 정도와 내용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민경환, 1989; Adorno, 1950)이나 불확실성 회피 경향(Hofstede, 1980), 인지적 종료욕구(이수정, 1999; Kruglanski, Webster & Klem, 1993), 보편주의 가치(김혜숙, 2002; Shwartz, 1992) 등과 같이 편견을 가지기 쉬운 개인의 성격적, 인지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상황적 특성에 더하여 개인적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태도,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인식과 정서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었다.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신뢰, 그리고 수용이 접촉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셋째는 태도요인들과 성격요인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었다.

방 법

조사대상자

표 1. 집단별 조사대상자 수

경험여부	집단분류	빈도 N(%)
무경험자	무경험대학생	113 (28.8)
	무경험성인	99 (25.3)
경험자	노동상담원	24 (6.1)
	대안학교 교사	8 (2.0)
	Y대 튜터	6 (1.5)
	B후원회 직원	5 (1.3)
	Y대 학생A반	31 (7.9)
	Y대 학생B반	22 (5.6)
	C대 학생반	35 (8.9)
	보호담당 형사	25 (6.4)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10 (2.6)
	교회에서 만남	11 (2.8)
자원봉사	3 (.8)	
합계		392 (100.0)

조사 대상자는 총 392명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무경험자 222명(56.6%)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 170명(43.4%)이었다. 무경험자 집단에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포함되었고, 경험자 집단에는 노동상담원, 대안학교 교사, 대학 튜터, 북한이탈주민 후원기관의 직원, 대학급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 둘째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측면, 셋째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뢰정

도, 넷째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수용정도였다. 그 이외에 성격요인으로 권위주의와 불확실성 회피경향을 측정하였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과 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총 30 문항으로 이루어 졌는데, 김혜숙과 오승섭(1999)의 연구에서 북한사람에 대한 특성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24개 형용사들 중 16문항과 권위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부지런하다, 검소하다, 단결력이 강하다, 질서의식이 강하다, 순박하다, 허세가 강하다, 합리적이다, 공격적이다, 지배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실리적이다, 배타적이다, 정이 많다) 북한이탈주민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속성들을(유능하다, 영약스럽다, 순진하다, 무기력하다, 신중하다, 성급하다, 수동적이다, 의존적이다, 정이 많다, 단순하다, 거칠다, 건실하다, 솔직하다, 허황되다) 포함시켰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과 긍정적인 문항이 반반씩이었다. 척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여섯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좋은 상품'의 신뢰도는 $\alpha=.75$, '거친 성격'의 신뢰도는 $\alpha=.77$, '의존성'은 $\alpha=.72$, '순진함'은 $\alpha=.71$, '실리적 특성'은 $\alpha=.60$, '단결력'은 $\alpha=.67$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는 김혜숙(2002)의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사용

했던 13개의 감정형용사(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불쌍하다, 슬프다,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존경할만하다, 두렵다, 좋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예, 즐겁다, 그립다)을 제거하고,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네 문항을(재미있다, 친근하다, 호기심이 간다, 부담스럽다) 첨가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역시 부정적인 문항과 긍정적인 문항을 반반씩 포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로 신뢰도는 $\alpha=.82$ 였고 두 번째 요인은 '긍정적인 정서'로 신뢰도는 $\alpha=.72$ 였으며, 세 번째 요인은 '연민'으로 $\alpha=.74$ 였다.

신뢰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7가지 문항 일자리에 안심하고 추천하겠다, 자신의 일을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성미를 참지 못할까봐 가끔 불안하다)을 연구자들이 제작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2$ 였다.

수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은 북한사람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것인가를 사회적 거리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는 Bogardus(1925)가 소개한 개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의 문항, 즉, 북한이탈주민에게 세를 줄 것인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것인지, 친구로 받아들일 것인지, 같이 동업을 할 것인지, 연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0$ 이었다.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은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 9개요인 중 편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4문항, '권위주의적 공격성' 4문항,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5문항,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3문항 등 총 16문항에 대하여 '강하게 불찬성'(1)에서 '강하게 찬성'(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2$ 였다.

불확실성 회피경향

불확실성 회피경향은 연구자들이 Hofstede(1980)의 불확실성 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10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나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과도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새로운 모험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놀 때는 좀 더러워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색다른 것에 호기심이 많다, 교사도 나는 모른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식 수업보다는 교사가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 좋다, 나는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유능한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하도록 하려면 일하는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엉뚱하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행동을 접하면 나는 거부감이 든다 등).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2$ 였다.

접촉의 특성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기간, 접촉한 횟수, 접촉한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과,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사전교육을 받았는지,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연령, 월수입, 직업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마지막에 자유응답을 할 수 있는 공란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자유로이 적도록 하였다.

절차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대학생의 경우 서울과 청주의 대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였고, 성인은 서울과 청주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수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다양한 접촉경로를 사용하였다. 대학급우는 탈북학생이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강의실에 가서 급우들에게 설문을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노동상담원의 경우, 일부는 노동부 직원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설문을 수거하였고, 일부는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강의실에서 얻었다. 보호담당 형사와 동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시간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그 외 자원봉사자와 대안학교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았고, 교회는 직접 찾아가서 설문을 배부하고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2주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대학교에서 튜터로 일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튜터와 탈북 학생들의 정규모임에 직접 찾아가서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결 과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경험자는 남자 60명, 여자 154명이고, 유경험자는 남자 77명, 여자 93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68세까지로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은 29.08세였다.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하는 28명(7.1%)에 불과했고 대학생이 191명(48.7%), 대학교 졸업 이상이 170(43.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만나보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월 이하가 47명(27.6%), 3-6개월이 24명(14.1%), 6개월-1년이 24명(14.1%), 1-2년이 54명(31.8%), 3년 이상 만나본 사람들은

표 2. 접촉 경험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기간

기간	빈도 (%)
3개월 이하	47 (27.6)
3-6개월	24 (14.1)
6개월-1년	24 (14.1)
1년-2년	54 (31.8)
3년-4년	16 (9.4)
5년 이상	5 (2.9)
합계	170 (100.0)

21명(12.3%)으로, 1-2년 정도가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총 몇 명 만나보았는지 물어본 결과 66.5%인 113명이 10명 미만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탈북 대학생의 학급 급우집단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는 10-30명이 26명, 31-50명이 12명, 71명 이상도 14명이나 되었다(표 3).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난 총 횟수는 10회 미만이 58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10-30회 정도가 48명(28.2%), 31-50회 정도가 20명 (11.8%), 51-70회 5명(2.9%), 71명 이상이 14명(8.2%)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69.4%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세 네 번 만난다고 하였다(표 4). 성인을 주로 대한 사람이 대부분(91.2%)이었고 청소년을 주로 대한

표 3. 접촉 경험자들이 만나본 북한이탈주민의 총 수

북한이탈주민 수	빈도 (%)
10명 미만	113 (66.5)
10-30명 정도	26 (15.3)
31-50명 정도	12 (7.1)
51-70명 정도	5 (2.9)
71명 이상	14 (8.2)
합계	170 (100.0)

표 4.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빈도

만나는 빈도	빈도 (%)
매일	7 (4.1)
일주일에 3-4번	56 (32.9)
일주일에 한번	62 (36.5)
한달에 한번	17 (10.0)
두세달에 한번	14 (8.2)
6개월 이상에 한번	14 (8.2)
합계	170 (100.0)

사람은 14명(8.2%)이었으며, 유아를 주로 대한다

표 5. 주로 대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사생활에 대한 지식	빈도(%)
거의 모른다	37 (21.8)
조금 알고 있다	83 (48.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 (25.9)
깊이 알고 있다	6 (3.5)
합계	170 (100.0)

고 응답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주로 대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깊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3.5%)이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4명(25.9%)이며, 조금 알고 있다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표 5). 연구대상자들 중 북한이탈주민과 깊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는 약 3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만나는 횟수가 많다 해도 그냥 피상적인 관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36명(21.2%)에 불과했다. 사전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 경찰서, 시민단체 등으로 응답하였다.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한 36명 중 26명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사전 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교육을 받은 시간은 2-3시간에서 6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였는데, 교육받은 시간이 30-40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와 정서: 요인분석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한 변인들을 요인분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은 총 30개의 문항을 주성분 분석의 방식을 이용하여 베리맥스 회전시킨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표 6). 첫 번째 요인은 '솔직하다', '건실하다', '믿을 수 있다', '유능하다', '정이 많다', '신중하다', '부지런하다' 등의 내용으로 주로 좋은 성품과 관련된 문항이 라서 '좋은 성품'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지배적이다', '공격적이다', '거칠다', '원위 주의적이다', '성급하다' 등으로 주로 강하고 거친 성격을 의미하여 '거친 성격'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수동적이다', '의존적이다', '무기력하다', '허탈하다' 등의 내용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특성을 의미하여 '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순박하다', '순진하다', '영악스럽다'의 세 문항이기에 '순진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는 '실리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이기적이다', '개인주의 적이다', '합리적이다'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득과 관련되어 손해를 보지 않는 특성으로 간주하여 '실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단결력이 강하다'와 '질서의식이 강하다'로 이는 '단결력'으로 명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는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표 7). 첫 번째 요인은 '불쾌하다', '혐오스럽다', '화가 난다', '두렵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되어서 '부정적 정서'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정이 간다', '좋다', '친근하다', '존경스럽다', '호기심이 간다', '재미 있다' 등의 감정으로 구성되어서 '긍정적 정서'

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요인분석

문항	성분						공통성
	1	2	3	4	5	6	
솔직하다	.64						.53
건실하다	.61						.47
믿을 수 있다	.60						.50
유능하다	.58						.41
정이 많다	.55						.48
신중하다	.55						.45
부지런하다	.55						.54
지배적이다		.81					.69
공격적이다		.80					.71
거칠다		.64					.57
권위주의적이다		.58					.64
성급하다		.47					.57
수동적이다			.83				.72
의존적이다			.77				.67
무기력하다			.61				.50
허황되다			.42				.54
순박하다				.73			.64
순진하다				.72			.62
영약스럽다(-)				.48			.56
실리적이다					.70		.53
주체성이 강하다					.57		.49
이기적이다					.52		.67
개인주의적이다					.49		.60
합리적이다					.46		.54
단결력이 강하다						.83	.72
질서의식이 강하다						.76	.73
회전후 고유치	3.28	2.81	2.63	2.41	2.19	1.79	
설명변량	12.60	10.80	10.10	9.27	8.40	6.88	58.05

표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의 요인분석

정서	성분			공통성
	1	2	3	
불쾌하다	.80			.70
혐오스럽다	.79			.67
화가난다	.68			.48
두렵다	.67			.50
부담스럽다	.64			.52
불편하다	.60			.50
불안하다	.58			.42
정리간다		.79		.64
좋다		.78		.65
친근하다		.78		.67
존경스럽다		.52		.36
호기심이 간다		.51		.36
재미있다		.47		.40
불쌍하다			.82	.72
슬프다			.78	.62
회전후 고유치	3.44	2.80	1.95	
설명변량	22.92	18.66	13.02	54.59

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불쌍하다’와 ‘슬프다’인데, 이것은 연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민’으로 명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집단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향이 있어서 경험자 집단을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집단끼리 묶어서 다섯 개의 집단을

만든 후, 무경험 집단과 함께 비교하였다. 보호담당 형사와 교회집단은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하였고, 노동상담원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탈북후원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묶였으며, 두 개 대학의 급우들은 ‘대학급우’로 묶었고, 대안학교 교사와 Y대 튜터, 학습자원봉사자들은 ‘대안학교 교사’로 묶었다. 이하의 분석은 모두가 여섯 집단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각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좋은 성품을 지녔다는 인식은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학급우, 무경험집단, 교회, 공무원, 보호담

당 형사, 교회사람, 공무원의 순이었다. 단결력이 강하다고 보는 인식은 대학급우와 무경험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공무원, 대안학교 교사, 보호담당 형사의 순이었다. 의존적이라는 인식은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안학교 교사, 공무원, 무경험집단, 대학급우, 교회에서의 만남 순이었다. 성격이 거칠다고 하는 측면 역시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그렇다고 보았고, 다음이 대안학교 교사와 공무원, 교회에서의 만남, 무경험집단, 대학급우의 순이었다. 실리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보호담당 형사, 교회, 대안학교 교사, 무경험집단, 대학급우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즉, 좋은 성품, 순진함, 단결력 등에서는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 즉 거친 성격, 의존성, 실리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대안학교 교사와 보호담당 형사가 유사한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담당 형사 집단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대안학교 교사 집단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감정은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낮았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높았고,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연민의 정서는 무경험 집단이 가장 높았고 교회 사람이 가장 낮았으며, 대안학교 교사와 보호담당 형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8. 분석을 위한 범주집단별 조사대상자 빈도

경험여부	집단분류	범주 집단명	N(%)
무경험자	대학생	무경험 집단	222 (56.6)
	성인		
경험자	보호담당 형사	보호담당 형사	25 (6.4)
	노동상담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공무원	39 (10.0)
	B후원기관		
	교회에서 만남	교회	11 (2.8)
	Y대 학생 A반		
	Y대 학생 B반	대학급우	89 (22.4)
	C대 학생반		
	대안학교 교사		
	Y대 튜터	대안학교 교사	17 (4.3)
학습자원봉사			
합계			392 (100)

당 형사의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순진하다고 보는 인식도 역시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높

표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집단간 평균

변인	무경험 집단 (N=208)	보호담당 형사 (N=25)	공무원 (N=38)	교인 (N=11)	대학급우 (N=87)	대안학교 교사 (N=17)	전체 (N=386)	F
좋은 성품	3.12 _{ab}	2.39 _c	2.59 _b	3.03 _b	3.26 _{ab}	3.39 _a	3.06	22.40***
순진함	3.25 _{ab}	3.05 _{ab}	2.90 _b	2.93 _b	3.16 _{ab}	3.41 _a	3.18	2.59*
단결력	3.59 _a	2.63 _b	3.03 _b	2.68 _b	3.64 _a	2.82 _b	3.43	14.94***
의존성	2.85 _{bc}	3.27 _a	3.12 _{ab}	2.76 _c	2.79 _c	3.15 _a	2.90	6.16***
거친성격	2.81 _b	3.36 _a	3.28 _a	2.98 _{ab}	2.69 _b	3.28 _a	2.89	8.40***
실리적 특성	2.75 _c	3.29 _{ab}	3.33 _a	3.15 _{ab}	2.62 _c	2.95 _{bc}	2.83	12.10***

* $p < .05$, *** $p < .001$

표 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의 집단별 평균

변인	무경험 집단 (N=208)	보호담당 형사 (N=25)	공무원 (N=38)	교인 (N=11)	대학급우 (N=87)	대안학교 교사 (N=17)	전체 (N=386)	F
긍정적	2.73 _{bc}	2.60 _c	2.68 _{bc}	2.88 _c	2.96 _b	3.43 _a	2.81	7.85***
부정적	2.57 _{ab}	2.83 _a	2.67 _a	2.32 _{bc}	2.22 _c	2.01 _c	2.49	9.78***
연민	3.61 _a	2.96 _b	3.15 _b	2.77 _b	3.03 _b	2.88 _b	3.34	11.90***

*** $p < .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정도를

였고 그 다음은 대학급우였다. 이 두 집단이 무경험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신뢰를 보인 반면, 교회사람, 공무원, 보호담당 형사들은 더 낮은

표 11. 신뢰와 수용의 집단간 평균

변인	무경험 집단 (N=208)	보호담당 형사 (N=25)	공무원 (N=38)	교인 (N=11)	대학급우 (N=87)	대안학교 교사 (N=17)	전체 (N=386)	F
신뢰	2.96 _{ab}	2.33 _c	2.40 _c	2.84 _b	3.13 _{ab}	3.20 _a	2.92	15.14***
수용	3.16 _{ab}	2.53 _b	2.98 _b	2.90 _b	3.14 _{ab}	3.46 _a	3.11	7.08***

*** $p < .001$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안학교 교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가장 신뢰하

신뢰를 보였다. 수용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여 대안학교 교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수용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보호담당 형사들이 가장 낮았다.

대안학교 교사와 보호담당형사의 특성 비교

위의 집단 비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및 신뢰와 수용 정도에서 가장 대비되는 두 집단이 보호담당형사와 대안학교 교사였다. 보호담당 형사들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북한이탈주민 접촉양상과 개인적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탐색해 보았다. 우선 접촉양상을 비교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총 기간과 사적으로 친한 정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나 본 북한이탈주민의 총 수, 만난 횟수 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보호담당 형사의 경우는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0명 이하를 접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 교사는 52.9%가 30명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7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보호담당 형사에 비해 많은 탈북자를 만나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X^2=12.26, p<.05$). 탈북자를 만난 횟수는 보호

고 응답하여 역시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탈북자를 만난 횟수가 보호담당 형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X^2=11.80, p<.05$).

이들이 주로 만난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보호담당 형사는 88%가 성인을 접촉하였고, 대안학교 교사는 56.3%가 성인을, 나머지 43.8%는 청소년을 접촉하여 차이가 나타나($X^2=5.33, p<.05$), 접촉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보호담당형사와 대안학교 교사의 사전교육 여부를 비교해보았다. 보호담당형사의 경우는 응답자 중 사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안학교교사는 오히려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의 분석에서 경험자들이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두 집단에서 교육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들이 개인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권위주의와 불확실성 회피경향의 측면에서 집단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권위주의 성격은 보

표 12. 권위주의 성격과 불확실성 회피경향의 집단별 평균

변인	보호담당 형사	공무원	교인	대학 급우	대안학교 교사	전체	F
권위주의 성격	2.89 _a	2.67 _a	2.29 _b	2.35 _b	1.96 _c	2.50	13.79 ***
불확실성 회피경향	2.89 _a	2.72 _a	2.81 _a	2.47 _b	2.36 _b	2.57	8.05 ***

*** $p < .001$

담당 형사는 68%가 30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 교사는 53.9%가 71회 이상 만났다

호담당 형사와 공무원이 가장 높았고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

피경향의 경우도 비슷하게 보호담당 형사와 교회사람이 가장 높았고 대안학교 교사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는 편견과 관련된 사회인지적 특성으로 지목된 두 가지의 특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신뢰와 수용의 예측변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지와 정서의 요인들, 권위주의 성향, 불확실성 회피경향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뢰와 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접촉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에,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우선,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권위주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적 측면의 좋은 성품, 거친 성격, 단결력 요인, 부정적 긍정적 정서, 그리고 권위주의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표 13).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불확실성 회피경향이었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측면의 좋은 성품요인이었다(표 14). 종합하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측면과 개인적 특성들이고 인지적 측면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반면, 수용에는 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인지적 측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험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R ²
신뢰	정서: 부정적	-.38***	.30***
	정서: 긍정적	.24***	.35***
	권위주의 성향	-.15**	.37***
수용	인지: 좋은 성품	.32***	.55***
	정서: 부정적	-.24***	.62***
	권위주의 성향	-.16**	.64***
	인지: 거친 성격	-.17**	.66***
	인지: 단결력	.14*	.67***
	정서: 긍정적	.14*	.68***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경험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R ²
신뢰	정서: 부정적	-.30***	.18***
	정서: 긍정적	.31***	.26***
	불확실성 회피 경향	-.18**	.29***
수용	인지: 좋은 성품	.33***	.21***
	정서: 부정적	-.33***	.33***
	정서: 긍정적	.17**	.36***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인식과 정서의 측면에서 각각 요인분석하여 그 주요 측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신뢰, 그리고 수용이 접촉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어떻게 다

른지, 또 접촉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은 여섯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할 때, '좋은 성품, 거친 성격, 의존성, 순진함, 실리적 특성, 단결력' 등의 차원을 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인식을 비교해보았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차원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는데, 단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특이하게 높았다. 이 고정관념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담당형사와 공무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성품이 별로 좋지 않고 거칠며, 의존적이고 실리적이고 단결력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학교 교사들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더 성품이 좋고 순진하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한편 거칠고 의존적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즉, 대안학교 교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비교적 객관적이면서 편견이 없는 시각으로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정서적 측면은 정이 가고 친근하게 여겨진다는 '긍정적 정서', 불쾌하고 두렵다는 '부정적 정서', 불쌍하고 슬프다는 '연민'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별 태도의 차이가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호담당 형사는 부정적인 정서는 가장 높고 긍정적인 정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는 가장 높고 부정적인 정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험 집단은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연민의 정서는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간에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무경험 집단이 가장 높았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남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는 높고 긍정적인 정서는 낮으면서, 동시에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은 것이다. 이 결과는 북한 사람에 대한 동정정서가 높게 나타난 김혜숙(200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위험한 태도로, 정서가 부정적이므로 그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수용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막연히 불쌍하게만 생각하여 동정심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천 폭발사고 이후 남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것이 아프리카의 난민에 대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거리감은 있으면서 그저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연민에는 어느 정도의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그들에 대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접근하다가 싫증이 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은 그들과 접촉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결과도 인식과 정서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를 ‘일자리에 안심하고 추천하겠다, 자신의 일을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성미를 참지 못할까봐 가끔 불안하다’ 등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는데, 대안학교 교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낮았으며, 무경험자는 그 중간정도에 위치하였다.

수용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세를 줄 것인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것인지, 친구로 받아들일 것인지, 같이 동업을 할 것인지, 연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역시 대안학교 교사가 수용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호담당 형사가 가장 낮았으며, 무경험자는 그 중간정도에 위치하였다. 전반적으로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그리고 신뢰와 수용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 집단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쉽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접촉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에서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들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보호담당 형사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이후 그들에 대하여 인지, 정서, 신뢰, 수용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대안학교 교사들은 그들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가장 높은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가장 높은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고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특징적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두 집단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접촉하는 양상과 개인적 특성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보호담당 형사보다 만난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만난 횟수가 많고, 청소년들을 많이 접촉하였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의 업무상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맡고 있고, 이들을 매일 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총 기간이나 만난 빈도에서는 두 집단에 차이가 없었고, 사적인 관계 측면에서도 대안학교 교사들이 특별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사전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도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편견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격적, 인지적 특성들에 대한 비교에서 보호담당 형사들은 무경험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들 중에서 권위주의 성격과 불확실성 회피경향이 가장 높고, 대안학교 교사들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두 집단 간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접촉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인지적 특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분배할 때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불확실성 회피경향 등과 같이 편견을 가지기 쉬운 특성이 낮은 사람들로 선발한다면, 본인도 도움을 주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도 남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수용을 쌓아 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직업적으로 접촉을 하는 보호담당 형사들은 남한적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남한사회에 나간 후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태도가 부정적일

때 그러한 느낌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더욱 위축되고 남한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접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전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과 개인적 특성들로 예측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권위주의 성격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권위주의 성격, 그리고 인지적 측면의 '좋은 성품', '거친 성격', '단결력' 요인이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신뢰는 정서와 성격특성의 영향을 주로 받고,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좀 더 포함하는 수용은 정서와 성격특성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지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뢰와 수용에 정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북한 사람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정서의 영향이 크다는 김혜숙(2000, 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보다 더 은밀하고 깊으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해도 정서까지 변하는 것은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

하다. 이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화합하는 길이 쉽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북한 사람을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이 친밀하게 여기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현 2002).

연구를 하면서 만난 보호담당 형사나 노동상담원들은 직업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남한 정부에서 뭐든 다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들의 수준을 모르고 턱없이 높은 지위의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를 구해주어도 금방 그만두고 나와 버린다, 자기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남한사회의 그들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것일 수도 있다(정병호, 2004).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튜터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랐다. 이들은 탈북 학생이 훌륭하고 남한 학생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하는 탈북 학생은 대학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 북한에서도 대학을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튜터들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차이를 빚어내는 원인에 대한 질적이고 심층적인 탐색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왜 보호담당 형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지,

대안학교 교사들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정서와 신뢰 및 수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한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뢰와 수용을 높이는 상황적, 개인적 변인들을 밝혀내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질적인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윤여상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가을호, 511-549.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민현선, 박미영 (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4), 177-196.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68-79.
- 전우영 (1998).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1998.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797-803.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전우택 (2000).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통일에 있어 민족 이질화의 내용과 극복방안. *기독교학문 연구소. 신앙과 학문*, 63-87.
- 전우택, 윤덕룡, 민성길 (2000).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에 따른 갈등구조와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 정기선 (1998).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 여름호, 427-448.
-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현 (2001).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우리교육*.
- 홍순혜, 박윤숙, 원미순 (2003).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3), 223-240.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 861-876.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1차 원고 접수일 : 2005. 1. 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1. 19

K C I

The Effects of Contact with North Korean Residents on Trust and Acceptance by South Koreans

Kye-Min Yang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ttitude, trust, and acceptance toward the North Korean residents by South Koreans. Three hundred and ninety-two South Koreans, including 222 with no contact experience with North Korean residents and 170 with contact experience, answered a questionnaire. The experience group included police officers who provide protection and settlement service, labor counsellors, social workers, church people, college classmates and tutors, and teachers in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youth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otecting police officers have highly negative attitudes in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and also show low trust and acceptance. Teachers in alternative schools, on the other hand, were found to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gnitive evalua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but still maintained positive affect and high trust and acceptance. People with no contact experience had negative affect along with pity, and showed medium level trust and acceptance. The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officers and teachers were attribu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uncertainty avoidance rather than to the frequency or depth of contac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rust and acceptance were found to be the affective componen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o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interface personnel and peace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trust, acceptance, authoritarian personality, uncertainty avoidance